

2-1-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출애굽기 20:3-6

말씀제목: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섭기지 말라!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가지고 은 신상들을 만들지 말며 너희에게 금 신상들도 만들지 말지니라.”(출 20:23)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말했습니다.

이때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출 32:2)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온 것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1 계명과 2 계명을 범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부패하였음이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굽히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조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다 경배하며 거기에다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였도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출 32:7-10)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격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자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다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을 살해하게 하여 그날에 백성 중에서 약 삼천 명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AI를 만들어 AI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 이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하며 심지어 AI를 세상의 구세주라고 말하며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테슬라를 통해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어 그 로봇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온 세상 사람들을 AI의 노예로 전락하게 하여 사탄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하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시회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하며, 사람의 머리 속에 칩을 넣어 뉴럴링크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을 사탄의 조종하에 두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사람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들어올리실 날이 바로 우리 눈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6-18)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일에 대해서도 그는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에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살전 5:1-4)

아멘! 할렐루야!